

입후보 출마의 변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회원번호 22번 이영미입니다. 2016년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5년 KLPGA에 입회하여 만30년이 넘게 협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1987년 JLPGA도 입회하였으나 국내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양국 협회의 회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 메이저를 포함한 몇 개 대회의 우승으로 KLPGA의 위상을 떨친 것이 참작되어 1996년도에는 KLPGA 공로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협회회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외국에서의 선수생활을 병행한 시기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대의원, 감사 등의 활동을 거쳐 지난 임기에는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하여 다년간의 국내외 활동 경험을 통해 습득한 선진 노하우 등을 잘 살리어 협회에 보탬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큰 임무를 주신다면 실천하고 싶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사를 역임하면서 제가 개선하고 싶었던 점이기도 합니다.

우선 집행부로 제가 당선된다면 회원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하여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회원의 의사는 대의원이 반영하고 대의원의 의사는 이사들이 반영하여 소통하는 집행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몇몇 상위 집행부에만 집중돼왔던 업무와 의사결정을 이사회로 내리고 협업하여 이사진의 참여를 높여 투명성 있는 이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민원, 개선사항 등도 겸허히 받아드릴 수 있도록 열린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사적인 이익으로 독점하지 않고 도움이 될만한 업무 기회는 공정하게 분담하여 모두에게 배움과 참여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후임이 교체 되었을 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30여년간 협회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쌓아 온 제 개인의 명예를 걸고 협회에 도움이 되는 일군이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후배들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진 골프 실력에 버금가는 선진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이 영 미

